



## Original Article

#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진주현<sup>\*</sup>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The Impact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thic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uhyun Jin<sup>\*</sup>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egu Catholic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dominicajin@cu.ac.kr

### Abstract

**Purpose:** In an evolving clinical environment, nursing students face ethical dilemmas that require robust ethical decision-making and heightened sensitivity. Developing these competencies before clinical practice is crucial for effective patient care and professionalism.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ethical sensitivity of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Methods:** Total of 121 third-year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from a university in D city who had not yet begun clinical practi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ethical sensitiv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both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 $r=.59, p<.001$ ) and nursing professionalism ( $r=.94, p<.001$ ).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 $\beta=.15, p<.001$ ) and nursing professionalism ( $\beta=.86, p<.001$ )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ccounting for 88.9% of the variance in ethical sensitivity. **Conclusio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fostering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a strong sense of nursing professionalism in educational programs. Enhancing these aspects may improve nursing students' ethical sensitivity, preparing them for ethical challenges in clinical practice.

**Keywords:** Clinical Practice,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Ethical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Nursing Students

**주요어:** 윤리적 민감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는 임상간호현장에서는 간호사의 민감하고 실천적인 간호윤리 역량

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간호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1]. 또한 2,3학년 때부터 시작되는 임상실습은 실제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경험을 통해 의료진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는 중요한 학습의 기회가 된다[2]. 이와 같이 이론과 실습의 교과과정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은 미래의 면허 간호사로서 임상에서 직면할 윤리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2].

윤리적 민감성은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즉 상황의 윤리적 측면을 이해하고 환자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며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3,4].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직면하는 윤리적 갈등 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윤리적 선택과 실제 윤리적 수행의 실천적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3-5].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성별,학년[6]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고 유사 개념인 도덕적 민감성은 학년, 종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7].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2], 간호전문직관[2], 윤리강령 인식[8],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7,9], 비판적 사고 경험[7]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관련성이 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윤리적 민감성 및 유사 개념인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윤리적 민감성과 함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간호윤리교육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는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2,8,10].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의미한다[2,8,10]. 간호대학생의 높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윤리적 문제를 발견하고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2,8,10,11]. 전문직 간호사로서 윤리적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 등을 포함하는 높은 간호전문직관이 필요하다[2,13].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직에 대한 간호사의 주관적인 견해이다[14]. 이러한 간호전문직관은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향상되므로 간호대학생 때부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이 함께 정립된다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윤리적 의사결정 역량 또한 높일 수 있다[5,15].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윤리적 민감성과 관련된 개별 요인을 탐색하거나 윤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관련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15]. 또한 임상실습 전인 1, 2학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1, 2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임상실습 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 전 윤리적 민감성 수준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의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역량을 파악하여 현 수준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윤리교육 전략 마련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D 광역시에 소재한 일개 간호대학 3학년 학생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으로 간호윤리학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전 일반적 특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 자발적 참여,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설문자료 활용에 동의한 학생 121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수 산출은 G-power 3.1.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1-\beta$ ) .90, 예측변인 4개(일반적 특성 2개, 주요변수 2개)로 계산한 결과, 최소 표본수는 108명으로 산출되었다. 대상자 중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121명이었고 이는 최소 표본수 108명 이상을 만족한다.

### 3. 연구도구

#### 1)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Sulmasy 등[10]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cale (PECS) 도구를 Laabs [16]이 수정·보완 하고, Kim [17]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최하 10점에서 최고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88이었다.

#### 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14]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29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전문직 자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실무의 속성,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최하 29점에서 최고 1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hronbach’s  $\alpha$ 는 .92[14],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다.

#### 3) 윤리적 민감성(ESQ-NS)

윤리적 민감성은 Muramatsu 등[18]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ESQ-NS) 도구를 Min 등[19]이 번역한 Korean vers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KESQ-N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13문항으로 3개 하위영역(환자에 대한 비판적 이해, 환자 전인 간호, 환자 사생활 및 정보 보호)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최하 13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2[18], Min [19]의 연구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73이었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D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 대학교의 3학년 간호대학생이며 간호윤리학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후 연구의 목적과 참여 방법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기준은 1) 일개 대학 3학년에 재학중인 자, 2)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설문에 동의한 자이며 제외 기준은 1) 휴학생, 2) 다른 학년의 학생이었다. 연구자가 윤리교과목의 교수자로서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 고려를 위해 구글폼 온라인 링크를 공고하여 자발적으로 접속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 참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 및 일반적 특성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여부, 설문 진행 중 자율적 중도 탈퇴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익명화하여 코드화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설문 시간은 약 10~15분 정도였으며, 교과목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연구 참여는 학과 수업 외 개인 시간에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료에서 응답이 부적절하여 분석에 제외한 사례는 없었으며 최종 12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5. 자료분석

최종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WIN 23.0(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였다.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5점 만점에 평균  $4.16 \pm 0.46$ 점,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98 \pm 0.40$ 점, 윤리적 민감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89 \pm 0.31$ 이었다(Table 1).

**Table 1.** Scores of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Sensitivity

(N=121)

Variables	M±S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4.16 ± 0.46
Nursing professionalism	3.98 ± 0.40
Ethical sensitivity	3.89 ± 0.31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

대상자는 모두 3학년으로 평균 연령은 21.3±0.21세이었고 여학생이 89.3%(108명), 종교가 '무'인 대상자가 78.5%(95명)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 $t=-2.18, p=.031$ ), 윤리적 민감성( $t=-2.11, p=.037$ )의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 차이는 없었다(Table 2).

**Table 2.** Differences in Major variables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121)

Categories	n (%)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sensitivity		
		M ± SD	t(p)	M ± SD	t(p)	M ± SD	t(p)	
Sex	Male	13(10.7)	4.10 ± 0.54	-0.45(.656)	3.76 ± 0.42	-2.18(.031)	3.73 ± 0.30	-2.11(.037)
	Female	108(89.3)	4.16 ± 0.45		4.01 ± 0.39		3.92 ± 0.31	
Religion	Yes	26(21.5)	4.21 ± 0.53	0.60(.550)	4.05 ± 0.34	0.93(.354)	3.98 ± 0.26	1.56(.122)
	No	95(78.5)	4.14 ± 0.44		3.97 ± 0.42		3.87 ± 0.32	

## 3.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민감성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r=.59, p<.001$ ), 간호전문직관( $r=.94, p<.001$ )과 양의 상관관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간호전문직관( $r=.53, p<.001$ )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thical Sensitivity

(N=121)

Variables	Ethical sensitivity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Nursing professionalism
Ethical sensitivity	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59 ( $p<.001$ )	1	
Nursing professionalism	.94( $p<.001$ )	.53( $p<.001$ )	1

## 4.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민감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생변수를 통제 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호전문직관이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윤리적 민감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을 더미변수로 처리한 후 주요 변수와 함께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로 공차한계는 0.69~0.96으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05~1.45으로 10 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으며,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검증 값인 Durbin-Watson 값이 1.92로 자기상관이 없었다.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20.70, p<.001$ ),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beta=.15, p<.001$ )과 간호전문직관( $\beta=.86, p<.001$ )의 윤리적 민감성에 대한 설명력이 88.9%이었다.

**Table 4.** Factors affecting Ethical Sensitivity (N=121)

Variables	B	SE	$\beta$	t	p
(상수)	.84	.11		7.55	<.001
Nursing professionalism	.66	.03	.86	23.41	<.001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09	.02	.15	4.03	<.001
Sex (ref: male)*	.02	.03	.02	0.51	.612

$R^2 = .891, \text{Adj } R^2 = .889, F = 320.70, p < .001$

\*Dummy variables: (ref: reference group)

## IV. 논의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평균 4.16점(5점 만점)으로, 선행연구에서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3.97점[9], 2학년 3.81점[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의 교과목 이수율과 임상실습 경험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3학년 학생은 선행연구의 2학년 학생보다 전문직 윤리를 포함한 전공 관련 교과목과 임상실습 준비를 위한 교내실습 교육을 이수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2학년 학기 중에 있는 학생들보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수집 시점은 3학년 1학기 첫 임상실습 직전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과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임상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현장에서 의료인의 윤리적 행동 실천에 한계가 존재함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현실적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상적 윤리적 의사결정보다 낮았던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8]. 그러므로 전공교과목 이수율과 윤리 이론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직 윤리 지식이 있고 환자와의 상호작용과 실제 윤리적 갈등상황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이상적인 윤리적 실천 행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또한 높은 것으로 사료 된다.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점수는 3.98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1, 2학년의 3.90점[20], 전체 학년의 평균인 3.82점[5]과 비슷하였고, 4학년의 3.34점[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 경향을 보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5]. 임상실습을 경험할수록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윤리적 딜레마 등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겪으며 간호전문직관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급 학년일수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12,22].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3.89점(5점 만점)으로 동일한 도구로 측정된 선행연구에서 임상경험이 있는 3, 4학년의 3.94점[8]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가 임상실습 경험이 없는 3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선행연구에서 3, 4학년의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없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의 윤리적 민감성이 타 학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보고되고 있어[5,7] 향후 연구 시점, 지역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연구결과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가 나타났고 여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가 없었던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5,23]. 그러나 몇몇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6],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여학생의 윤리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의 평균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2,6]. 종교 유·무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6], 간호전문직관과 윤리적 민감성[5,23]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대상자의 나이, 성별, 윤리교육 경험, 학년, 자료수집 시점과 기관의 수 등 다양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반복 연구를 통한 연구결과의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윤리적 민감성의 유사개념인 도덕적 민감성이 간호전문직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9],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이 간호전문직관[2,5],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2]과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교육 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향상을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과 간호전문직관을 함께 향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과 간호전문직관은 강한 상관관계( $r = .94$ )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인  $r = .52$ [2],  $r = .63$ [5]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일치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 비록 본 연구에서 다중회귀분석 전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 지수인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지수(VIF)가 정상 범위였으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클 경우, 변수들의 독립적인 영향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윤리적 민감성의 영향요인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으로 나타났는데,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윤리적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윤리적 민감성[2], 도덕적 민감성[9,11]의 관계가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윤리적 의사결정이 윤리적 민감성과 유사한 개념인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 유사하다[9-12].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특정 상황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확신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9]. 또한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딜레마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기초한 윤리적 선택(Ethical choice)인 이상적 윤리적 의사결정 보다 실제로 윤리적 수행을 하는 실천적 행위(Ethical action) 현실적 윤리적 의사결정과 더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8]. 그러므로 간호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윤리적 자신감을 고취시켜 실제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는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고 나아가 실제적인 윤리적 선택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8]. 그러나 선행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임상실습 전인 본 연구의 대상자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반복, 확대 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간호전문직관은 전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5],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9]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간호학과 1학년 교육과정부터 시작되는 간호학 개론, 생명 윤리교육 등의 기초 교과목을 바탕으로 학년이 높아갈수록 전문적인 전공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스스로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윤리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5,15]. 이를 위하여 교과과정 뿐 아니라 임상실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윤리교육을 위한 임상실습현장의 교육적 환경의 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 이와 동시에 실제적인 교육지원 방안의 모색과 이를 위한 교수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한편 관련 연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이 학년에 따른 학업 과정과 임상실습 경험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윤리적 민감성을 고취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8].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전 3학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일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자, 자료수집 기관을 확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 V. 결론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과 관련 요인들의 수준을 이해하고 윤리적 민감성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간호교육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1, 2학년 교과과정을 이수한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윤리교육을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하기 위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간호전문직관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이론과 임상실습의 현장 지도자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또한 필요하다.

##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s of interest.

## Funding

None.

## Authors contribution

All work was done by Juhyun Jin.

## References

1. Hwang HY.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7;20(3):305-316. <https://doi.org/10.35301/ksme.2017.20.3.305>
2. Kim MJ, Na EH. Impact of ethical values, ethical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4;24(9):101-113. <https://doi.org/10.22251/jlcci.2024.24.9.101>
3. Wittmer DP. Behavioral ethics in business organizations: What the research teaches us. In: O'Toole J, Mayer D, editors. *Good Business*. New York, NY: Routledge; 2010. 62-73 p.
4. Rest JR.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NY: Praeger; 1986.
5. Kim YK, Joung MY.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115-124.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115>
6. Lee JM, Min HY, Kim YJ. Factors affecting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Secondary data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2021;9(4):204-212. <https://doi.org/10.17703/JACT.2021.9.4.204>
7. Lim MH.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9):610-618. <https://doi.org/10.5762/KAIS.2016.17.9.610>
8. Yoo MS, Jin JH. Factors affecting ethical decision-making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2023;30(2):163-173. <https://doi.org/10.22705/jkashcn.2023.30.2.163>
9. Kang BH, Cho HY. Mediating effect of moral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3;29(2):180-189. <https://doi.org/10.5977/jkasne.2023.29.2.180>
10. Sulmasy DP, Geller G, Levine DM, Faden R.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s,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990;150(12):2509-2513. <https://doi.org/archinte.1990.00390230065008>
11. Kim MJ, Na EH.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self-esteem on perceive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2;16(6):255-264. <https://doi.org/10.21184/jkeia.2022.8.16.6.255>
12. Oh MJ, Lee JM. The effect of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and ethical decision-making on the nursing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11):181-195.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11.018>
13. Choi EY. Ethical dilemma and professionalism of long-term care hospital nurse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8;4(1):153-166.
14.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6):1091-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15. Bang SY.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making 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20;21(1):568-576. <https://doi.org/10.5762/KAIS.2020.21.1.568>
16. Laabs CA.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 2012;33(1):10-14.
17. Kim CH. *The relationships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Daeje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14. 1-53 p.
18. Muramatsu T, Nakamura M, Okada E, Katayama H, Ojima T.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2019;19(1):215-223. <https://doi.org/10.1186/s12909-019-1625-8>
19. Min HY, Kim YJ, Lee JM.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ethical sensitivity questionnair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20;31(4):503-513. <https://doi.org/10.12799/jkachn.2020.31.4.503>
20. Moon MY.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8;8(9):305-314.
21. Cho MO, Baek KH.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Policy*. 2023;2(1):37-44. <https://doi.org/10.23149/JDP.2023.2.1.037>
22. Jo AY, Je NJ.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 of nursing students in the post-corona era.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3;7(2):15-29. <https://doi.org/10.34089/jknr.2023.7.2.15>
23. Kim EH, Jin JH. The influence of learning ethics consciousnes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ethical values on the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ulticultural Health*. 2024;14(2):221-231. <https://doi.org/10.33502/JKSMH.14.2.221>